

밥값 · 커피값 오늘부터 인상

적자 타개위해 ... 잉여금 식당 환경개선 투자계획

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 이하 생협)이 오늘(17일)부터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 음식값을 인상한다.

이는 지속되는 적자 때문이며 인상되는 식대를 살펴보면 학생식당 메뉴는 △백반=1천 3백원 → 1천 6백원 △일품식=1천 5백원 → 1천 8백원~2천원 △특식=1천 8백원 → 2천 2백원~2천 5백원으로 인상을 결정했으며 일품식의 메뉴가 주로 나온다.

교직원 식당의 식대는 △백반(된장찌개)=3천원 → 3천 2백원 △일품식=3천 2백원~3천 5백원 → 3천 5백원~3천 8백원으로 인상되며 커피 자판기 값도 150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본교의 식대는 1996년, 커피가격은 1988년도 이후 고정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생협 김용문 팀장은 "현재 시행되는 것은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실정에 맞게 현실화시킨 것이다"며 "분식과 양식에 서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후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생협은 지난달 19일부터 2일간 본교생 267명을 대상으로 △음식의 양과 질 △식대가격 △식당환경 등의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본교 구성원 16명과 △서울대 △연세대 △승실대 등의 타대학 식당환경을 알아본 후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번 식대인상을 결정했다.

또한 식대인상의 준비과정으로 지난 4일부터 2주간 △교수 △직원 △대학원생 △학생을 대상으로 인상될 메뉴에 대한 시식행사를

	종류	인상 전	인상 후
학생식당	백반	1300원	1600원
	일품식	1500원	1800~2000원
	특식	1800원	2200~2500원
교직원	백반	3000원	3200~3500원
	일품식	3200~3500원	3500~3800원
기타	자판기커피	100원	150원

〈표〉 식대인상표

실시한 후 설문조사와 지난 14일 생협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메뉴에 관한 논의를 했다.

한편, 생협은 식대 인상화 이후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은종기 설치 △메뉴 진열대 설치 △식탁 및 의자교체 △인테리어 공사 등 식당의 환경개선에 투자할 예정이며 오늘(17일)부터 교직원 식당과 같은 광반배식으로 전부 교체

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식권은 환불이 가능하다.

학내구성원들에게 수년 동안 음식의 질이 문제시 돼왔던 만큼 이번 식대인상에 따른 음식의 질 향상 및 의사교체 △인테리어 공사 등 식당의 환경개선에 투자할 예정이며 오늘(17일)부터 교직원 식당과 같은 광반배식으로 전부 교체

황우상 기자
hjs0228@dongguk.edu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나'

오늘(17일)부터 4일간 대동제 열려

2004년 목련대동제가 오는 17일부터 4일간 열린다.

'민족동국 파도타기'를 구호로 하는 이번 대동제는 △일만이천이 주제로 진보적이고 새로운 대학문화 형성 △학생회·학회·동아리·소모임 강화 △학자투·반미반전·민족공포 등을 기조로 준비됐다.

이와 관련해 구자룡(아간영문4) 총학생회장은 "학생 개개인 모두가 주체로서 학내 가장 작은 단위의 행사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대동제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가 진행하는 행사로는 △17일=개막식 민족동국 뽀박질, 전통 성년식, 반전통일 한마당 △

18일=순석춘 강연회, 6회 서울여성화계 앵콜 상영제 △19일=목련대동제 노래자랑, '아내바다' 장터, 조남준 강연회 △20일=6.15김발말이, 6.15공동선언 전문 타자치기 등이다. 또한 부대행사로 디카사진전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민족동국 뽀박질'은 대동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행사를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며, 반전통일 한마당은 이라크 전쟁 반대와 포로학대에 대한 문제를 알리기 위한 자리로 노래패와 율동패 창작 공연 등으로 이뤄진다.

또한 전통 성년식은 요즈음 성년의 날이 그 본질을 상실하고 점차 소비적으로 변하는 데에 맞서,

과거 성년식 과정을 재현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좀더 경건하고 겸허하게 성년이 됨을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6.15공동선언 전문 타자치기와 지난해에 이어 실시하는 6.15김발말이 대회는 학생들이 6.15 공동선언에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한 행사이다.

이와 관련해 이국한(신방4) 대동제 기획단장은 "매년 대동제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며 "이번 대동제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2차 전공결정 실시

오는 24일부터 5일간 진행

2004학년도 2차 전공결정 신청이 오는 24일부터 5일간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된다.

신청대상은 2004학년도 2학년 재학생 중 전공 미결정자와 2학년 2학기 복학생 중 전공 미결정자이며 개설된 전공의 4지망까지 지원 가능하다.

선발인원은 해당학과 전공별 인원배정 정원에서 1차 선발을 제외한 잔여 인원이며 지원자가 배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또한 초과인원은 차순위 지망 전공에 순차적으로 배정하며, 이 경우 평균 평점이 낮더라도 1차 지망 지원자를 우선 배정한다.

한편 전공 미결정 1차 복학생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2차 복학생은 오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학년 재학생과 1차 복학생의 전공 배정 결과는 오는 8월 11일, 2차 복학생은 오는 23일에 각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회(喜) ... 지난 토요일 민해광장에서 한 초등학교생이 떨어진 꽃잎을 한곳으로 모아놓고 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해 맑은 미소가 꽃보다 싱그럽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현각스님 초청강연 문화관 19일

현각스님 초청 강연회가 오는 19일 오후 4시 문화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회는 불교학전공 학생

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서양인들의 불교인식과 우리의 불교'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현각스님 강연회는 지난해 11월 '참다운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이어 두 번째다.

현각스님은 미국 뉴저지 출신으로 하버드대학원에서 종교철학을 전공했으며 지난 92년 출가해 현재 화계사에서 수행 중이다. 강연회는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직원노조 임금 4.5% 인상

학교 4% · 직원노조 8% 제시

2004학년도 교직원 임금인상이 정을 4.5%, 식대 10만원으로 확정됐다.

직원노조(위원장=강형석)는 지난 11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학교측과 이와 관련한 체결식을 갖고 임금을 지난해 대비 4.5%인상하고 매달 식비로 10만원을 지원받기로 합의했다.

이는 8%인상을 요구한 직원노조와 4%인상을 제시한 학교측이 지난 3월부터 2달간의 협상 끝에 합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규환 직원노조 사무국장은 "불가인상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학교와의 공통분담차원에서 이번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회(회장=염준근) 역시도 이번 임금인상율이 예상보다 열악하지만 별도로 학교측에 임금협상 요구를 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한편 2년마다 실시되는 근로환경개선과 관련된 단체협약은 올해는 진행되지 않는다.

본교 · 농협 공동기획단 발족 산학협력계획 논의할 예정

본교와 농협중앙회(회장=정대근)가 산학협력을 위한 공동 기획단을 지난 10일 발족했다.

공동기획단은 농협과의 산학협력 관련 전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본교와 농협 각각 9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다. 본교는 이영환 기획인사처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농협측에서는 박인희 공제보험기획 부장이 위원장이다. 공동기획단은 오늘 11시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진행해 앞으로의 구체적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건국대와 학술교류 체결

국내 일곱번째 ... 교육기회 확대 발판 마련

본교가 건국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지난달 26일 체결했다.

국내 대학으로는 7번째이며 건국대와의 협정체결은 21세기 대학발전과 학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정 내용은 △교직원 상호교류 △학생 교류와 학술회의 개최

△학술정보와 출판물 교환 △행정 정보의 교환 △교육·연구용 기자재 및 시설의 공동 사용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교류실의 한 관계자는 "본교에 없는 교육과정을 교류를 통해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보직인사 발령

본교가 지난 11일 교원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보직인사 내용은 △불교문화연구원장=박경준(불교대학 불교학) △일본학연구소장=홍운식(사범대학) △경계경영연구원장=김성중(경영대학 경영학) △벤처창업보육센터 소장=이동웅(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이다.

보리소

폭력의 계절, 자비의 계절

아무리 다른 화두를 끄집어내려 해도 5월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고백이다.

폭력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와 이유를 지니더라도 결국은 악(惡)이다. 권력자는 '해로운 폭력'에 대한 '이로운 폭력'의 행위를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합리화 하고, 억압받는 자는 '부당한 폭력'에 맞서는 '방위적 폭력'을 생존의 조건으로 정당화 한다. 그러나 폭력 앞에 그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인다 하여도 그것은 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중생계를 벗어나지 못한 인간은 선과 악이 혼재하는 상황을 오직 이성에 의지하여 감내해야만 하는 존재이다. 이성의 본질적 기능은 선과 악에 대한 판단력이다. 그러나 도구적 이성은 선과 악을 대립적으로 파악한다.

"나는 선하고 옳으며, 너는 악하고 그르다"라는 선·악의 대립적 인식은 선하고 옳은 자로 하여금 악하고 그릇된 자를 억압하게끔 하는데, 그 억압의 수단은 흔히 폭력의 양태를 지니게 된다. 그리하여 '선한 자가 행하는 악'이라는 역설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악은 악으로서 자유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폭력은 보복을 통해 반복되는 폭력을 낳기에, 폭력으로서 폭력을 그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와 지혜를 통해 악을 포용하는 선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앙골마라는 "천 명의 사람을 죽여 손가락 천 개로 목걸이를 만들어 오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라는 스승의 사탄 가르침을 받고 999명을 죽였다. 마침내 자신에게 음식을 주려 온 어머니를 살해하여 천 명을 채우려던 때에 이 소식

을 아신 부처님이 앙골마를 찾아와 바른 법을 들려주고 불도에 귀의하게 하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천인공노할 죄악을 저지른 살인마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올바른 지혜와 자비로써 포용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나와 너, 선과 악을 대립과 투쟁으로 보지 않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지혜와 자비가..." "폭력으로 얼룩진 5월을 다시 아름다운 계절로 되돌릴 수 있기를..."

류 승 주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지면안내

3면 해설

비정규직 노동조합실태를 알아보다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화두로 떠오르고있는 가운데 대학내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학내 비정규직 노조의 활동과 이에따른 효과 등을 알아보았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룡천에 사랑을 보냅니다

지난달 24일 룡천 대참사로 많은 동포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잃었습니다. 이에 각 단과대 로비, 중앙도서관, 식당 등에서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동국인의 작은 사랑이 북의 동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사

5면 학술

불교학의 100년 역사를 알아보다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 서온 본교의 100주년 기념의 불교 역사를 알아보았다.

8면 문화

축제

그동안 인기 없던 대학축제. 모든 구성원들이 화합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도서관 이전 후 동국관·학술·문화관 공간 논의 현황

학교 “확정됐다” 학생회 “논의해야”

지난해 이후로 논의자리 없어 ... 일반학생 소통 우선 필요

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대 △불교대 △불교대학원의 구도서관 이전에 따른 동국관과 학술·문화관 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우선 동국관 공간 활용에 대한 사과대, 경영대, 야간강좌 학생회의 논의가 지난해 12월 이후 진행되지 않았고 아직 뚜렷한 확정안을 가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논의에 참석했던 김윤권(정통4) 야간강좌 총학생회장은 “단지 각 단과대 학생회별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세 단과대는 모두 세미나실 및 소모임 공간 등 학생자치 공간 확충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영대 학생회는 “광고학과와 경영대 특성상 설비기기를 이용한 야간강좌가 필요할 때가 잦는데 그에 대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사과대와 야간강좌도 “소모임의 수는 많은데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불교대 이전 후 공간에 대해 예술대 이진영(영화4) 학생회장은 “필요공간에 대한 과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며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신정민·국문학 석사과정)는 불교대학원 이전 후 생기는 공간에 대해 대학원 연구실 확충을 요구하는 공

문을 지난해 말 학교측에 보냈다. 학교측이 제시한 안은 △대형강의실 △중형강의실 △휴게실 △교급 세미나실로 대학원 연구실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현(산림자원학 석사과정) 대학원 총학생회 복지국장은 “대학원 연구실 좌석이 현재 158석으로 현재 대학원 공간 문제는 학생들과 밀접한 사안이다. 그러나 아직 단과대 내 논쟁 수에 비해 좌석 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미 확정안이나 변동 사항이 없을 것이라 는 입장이다. 학교 측 안은 동국관의 경우 △대형강의실 2개 △중형 강의실 1개, 문화관은 △중형강의실 3개 △소형 세미나실 2개 △교

수연구실 6개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심사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본교 교육환경에서 가장 열악한 것이 강의실 부족이고 이 때문에 강의실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간 문제는 학생들과 밀접한 사안이다. 그러나 아직 단과대 내 논의 부족할뿐더러 학교논의와 일반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등 논의의 전 과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간을 사용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학생인 만큼 일반 학생의 다양한 여론부터 수렴해 학교 측에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우수장학금신청 오늘(17일)부터 지난해보다 성적반영비율 줄어

2004학년도 2학기 우수장학금 신청이 오늘(17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우수장학금은 2004년 1학기 평균점수 3.0이상인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등록금의 30%를 감면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서를 비롯해 재산세 증명서와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학업지도 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참가신청기간에서 활동한 학생인 경우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없이도 인정된다.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50% △가정형편 20% △사회봉사 10% △학업지도교수평가 20%이다.



나들이 가고 싶어요 ...

시화당 서울시 학생위원회(위원장=임세환)가 지난 14일 동국관 3층 로비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참사랑 인증 교육생 모집

20일까지 취업지원팀에서 원서 교부 및 접수

취업지원팀(팀장=한문우)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참사랑 인증 교육제기 교육생 모집을 위해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실시한다.

지원자격은 △6개 학기 성적 3.75이상 △토익점수 850, 토플 250, 텝스 755점 중 한가지 이상 취득해야 한다.

또한 △영어회화 1, 2 강의에서 B+이상 취득, 워드프로세서 1급 이상, 인터넷 정보 검색사 2급 이상,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중 한 가지 이상을 취득하거나 △분

활동 40시간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자이다.

합격자는 △지원서 △성적증명서 △외국어 시험 성적 사본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기타 봉사활동 증명서(해당하는 자에 한함)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오는 31일 부업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합격 시에는 총장명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취업 추천서 우선권이 주어진다.

출판부 책 2권 출간 '창업학' '작품중심의 독일문학사'

출판부가 '작품중심의 독일문학사'와 '창업학'을 출간했다. '작품중심의 독일문학사'는 일호일(독어독문학)교수가 번역했으며 △민중을 위한 성경 △괴테와 실러 등 독일문학사상 최초 작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엮은 독일문학사이다.

박준엽(산업시스템공학)교수가 저술한 '창업학'은 이론뿐만 아니라 △사업성 분석 △사업 계획서 작성 △입지 및 상권 분석 △국내외 창업 등의 사례까지 실린 활용서이다.

백수현 신임 산학협력단장 인터뷰 “산학협력 기반 마련으로 학교경쟁력 강화해 나갈 것”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국책연구비가 지난해보다 증가함에 따라 대학별 국책연구비 획득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본교도 산학협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그동안 산학협력기술센터와 창업지원센터 등에서 분산적으로 맡아오던 산학협력의 업무를 총괄하는 산학협력단을 신설했다.

신임 백수현(전기공학) 산학협력단장을 만나 산학협력단의 설립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별도의 총괄기구인 산학협력단이 필요한 이유는.
= 그동안 학내 산학협력력을 총괄 조정·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없어 산학협력과 교수들의 연구 활동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업무가 중복되기도 했다. 이런 비효율적 업무를 막고 산학협력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 교수와 학생이 느끼는 실질적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 교수들의 공동연구 개발과 신기술 사업화 등의 산학협력 시에 대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산학협력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일환으로 교수 임용과 업적 평가 시 그 실적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학생들의 경우 그동안 산학협력 참여의 기회가 전무했으며 산학협력 결과와 취업이 연계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생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 성과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보상 체제가 마련되며 신기술 사업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방학동안 학생들이 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지원점과 앞으로의 계획.
= 무엇보다도 현재 최대 목표는 3년 이내에 많은 연구실적 등을 획득해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본교 산학협력센터와 연계해 맺고 있는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지난 10여년간 준비해 온 '산학특화를 위한 복합 학제 간 개발기술 로드맵'을 바탕으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부천 신도시에 건설 중인 테크노파크에 대해 중최초로 본교 연구소가 입주해 이곳에서 학교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서울·경주캠간 학점교류 신청 동일전공일 경우 전공학점 인정

2004학년도 2학기 서울·경주캠기간 학점교류 신청이 내일(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학점 교류 신청은 2004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3학기 이상, 평균 15학점을 이수하고 평점 평균 3.0이상인 전공결정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학점 교류 신청자는 수강신청 전에 학과 주임교수

의 확인을 받아 수강신청원을 작성한 후 교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발은 누계평균평점 순으로 진행되며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허가된다. 캠퍼스 간 학점교류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전공일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그 외 교과목은 교양선택, 교직, 자유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한전무대

스피드게임

○...대동제를 준비하는 단과대는 스피드 경쟁을 한다는데. 이유인즉 대다수 단과대에서 대동제 기간 바로 이전 주까지 일정이 나오지 않아 축제기간에 임박해 급하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소중한 축제준비는 사전 부족 등으로 학생들의 무관심을 더욱 유발하는 행위가 아닐는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동약 축제준비단의 스피드,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습니다(!)”

펍데기 사무실

○...본관에는 '유명무실'을 몸소 실천하는 부서가 있다는데. 이유인즉 TF팀인 경영전략실이 지난해 해체됐음에도 그 팻말과 사무실은 한달이 지나도록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부 부서는 공간부족을 해소하고 있는 만큼 공간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급히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사무 공간에 대한 경영전략과 함께 세워라(!)”

열맞춘 동국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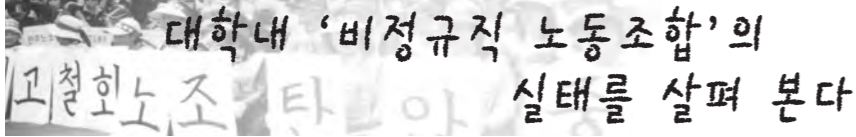
○...한동안 동국관과 교수회관에 전화통을 걸려면 인내심 수양을 먼저 해야 한다는데. 이유인즉 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중 실수로 동국관과 교수회관의 전화케이블을 건드려 전화선이 영긴 것이라고. 각종업무에 차질을 빚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새로운 통신시스템 개발, 동국관, 교수회관의 윈스톱 통화서비스(!)”

미로 주차장

○...본교 학생들은 학내에서 차들로 이뤄진 미로(?)를 빠져 다닌다는데. 이유인즉 구도서관 주차공간이 용 차들이 리모델링공사로 주차가 불가능해지자 기존 주차선 이외의 공간까지 침범해 학생들 이동에 불편을 주는 것이라고. 학내 주차공간이 줄어든 만큼 벌금제를 적용하거나 10부제 운행을 보다 강력하게 해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학내 숨은 1m를 찾아라(!)”

대 동 제 따 라 잡 기

<p>총학생회 △17일 · 5.18광주민주화투쟁기념 '민족 동국 땀박질' 오전 11시 30분 팔정도 집결 · 전통 '상년식' 오후 2시 팔정도 · 반전통일 한마당 오후 6시 팔정도</p> <p>△18일 · 특별 강연회 손석춘 씨의 '이 라크파병 철화와 한반도 평화' 오후 2시 학술관 야외공간</p> <p>△19일 · 대동한마당 가요제 오후 5시 만해광장 · 특별 강연회 조남준 씨의 '만화로 다가가는 세상' 오후 4시 다항관 세미나실</p> <p>△20일 · 6·15 김발발이 오후 3시 통일광장 · 6·15 공동선언 전문 타자치기 오후 5시 동국관 3층 로비</p> <p>△18~20일 · 6회 서울여성영화제 앵글 상영 중앙도서관 AV실</p> <p>△19, 20일 · 전통차집 오후 12시 30분~3시 상록원앞</p>	<p>· 용천참사 성금모금을 위한 '아 나비다' 장터 오후 2시~4시 정각원 앞</p> <p>불교대 '불교도주인' △17일 · 입제식 오전 10시 팔정도</p> <p>△18일 · 문화공연 오후 6시 팔정도 · 인도영화제 오후 7시 팔정도</p> <p>△19일 · 국제선원 협각스님 강연회 오후 4시 문화관 세미나1실</p> <p>△20일 · 이관사관 공연(서운지 태우기) 오후 6시 대운동장</p> <p>△17~20일 · 인도 불품 판매 및 타로 카드 팔정도 · 통일 기원 및 전쟁반대 연일 불이기 중앙도서관 앞 · 차 보시 및 새끼줄에 서원달기 오전 10시~오후 5시 중앙도서관 앞</p> <p>· 법공공연 및 타중 오전 10시 팔정도</p>	<p>· 아라한 답사 대장정(유적 여행지 소개) 오전 11시~오후 5시 팔정도 · 한지로 공책 만들기, 팔정도 · 법공공연에 이은 사시예불 오전 10시 팔정도</p> <p>문과대 △19일 · 웃놀이, 보물찾기 낮 12시 명진관 앞</p> <p>△20일 · 2인3각 철인 체육대회 낮 12시 명진관 앞</p> <p>이과대 △19일 · 대장군 놀이(음식, 간장 맛 및 추기), 남자 팔씨름, 과대항 고 스톱 명진관 앞</p> <p>△20일 · 요리대회, 여자 팔씨름 명진관 앞</p> <p>△19, 20일 · 물풍선, 로또, 과일꽃이 명진관 앞</p> <p>법과대 △20일</p>	<p>· 법대 가요제 오후 6시 나체발 · '땀뿌라 유치뽕뽕' 오후 2시~6시 나체발</p> <p>△19, 20일 · 떡꼬치판매, 타로집 오후 4시~8시 통일광장</p> <p>· 주점 오후 4시 통일광장</p> <p>사과대 △20일 · 과대항 팔씨름 통일광장</p> <p>△18~20일 · 과대항 피구 통일광장</p> <p>△19, 20일 · 과대항 줄다리기 통일광장</p> <p>· 주점 오후 4시 통일광장</p> <p>경영대 △17일 · 학부제폐지 관련 토론회 오후 6시 동국관L205</p> <p>△18일 · 새내기장기자랑, 과별대항 놀이한마당, 고사</p>	<p>오후 5시 통일광장</p> <p>생자대 △19일 · 생자대 해오름식 오후 6시 혜화관 앞</p> <p>· 소모임 '풀잎이름' 세미나 오후 1시 육중학실습실</p> <p>· 소모임 '가람' 세미나 오후 4시 산림경영학실습실</p> <p>△20일 · 영화제 · 스타크래프트 대회 오후 8시 혜화관 앞</p> <p>· 소모임 '나무회' 세미나 오후 3시 산림경영학실습실</p> <p>· 주점 오후 6시 혜화관 앞</p> <p>공과대 △19, 20일 · 주점 오후 6시 원흥관 4층 입구 원흥관 1층 입구 자갈밭</p> <p>정산대 △19, 20일 · Take Out 오전 11시~오후 6시 정보문화관 입구</p>	<p>· 주점 오후 6시 정보문화관 입구</p> <p>사범대 △20일 · 주점(문예패, 풍물패 공연 등) 오후 4시 학림관 앞</p> <p>예술대 △18일 · 여성영화제 오후 5시 덕암세미나실</p> <p>△19일 · 베틀시장 오전 11시~오후 6시 문화관 로비</p> <p>· 중앙동아리(SSID, ODC) 공연 오후 8시 두리터</p> <p>△20일 · 주점 오후 6시 문화관 앞</p> <p>야간강좌 총학생회 △20일 · 소모임 문화제, 야간강좌가요제 오후 7시 통일광장</p> <p>동아리 △17일 · 마식 오후 6시 학림관소극장</p>	<p>△18일 · 피어리스턴 락 페스티벌 오후 2시 만해광장</p> <p>△19일 · SSID, ODC 대동한마당 사전무대 만해광장</p> <p>· 택견 오후1시 불상 앞 시연회</p> <p>· 여명 영화상영 동국관 로비</p> <p>· 주점(봉사분과, 민족사연구회) 오후 4시 학관 앞, 건너편</p> <p>△20일 · 검도부, 선무부 오후 1시~4시 20분 불상 앞 시연회</p> <p>· 주점(스키부) 오후 4시 상록원 벤치</p> <p>△21일 · 아리랑공연 오후 6시 학림관 소극장</p> <p>△19, 20일 · 학술2분과(TIME, DUSSE, 자연과학연구회) 전시회 다항관 앞</p> <p>· 예창분과(문학회, 동그라미, 만화회) 전시회 팔정도, 구름다리</p> <p>· 학술1분과 노동영화상영 · 기우회 중앙도서관 앞 바둑대회</p> <p>· 주점(KCC, 프론티어) 오후 4시 동국관 L관 앞</p> <p>· 주점(SSID) 오후 4시 학관 앞</p>
---	---	---	---	---	--	--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등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학내 비정규직들의 '소통창구' 격인 노동조합의 운영실태와 이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침묵은 부당함에 동조하는 것이다”

대학내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조합 등 제도마련 시급

사립대학들이 외환위기 이후 앞 다투어 재정긴축을 목적으로 비정규직·파견 근로직 수를 대폭 확대시킴에 따라 현재 대학 내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이 최대한 민주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방안에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실제 대학 내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는 경우 매년 임금 인상과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학교 측과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어 고용불안과 임금 등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 즉, 학교 측과 처우 개선관련 단체 교섭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조가 있는 대학의 급여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협상을 통해 비정규직 역시도 정규직과 같이 경력을 인정받는 등 처우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있다.

비정규직 노조결성이 어려운 현실

대학 내 노동조합은 △정규직 단일 노조 △정규직·비정규직 노조가 분류된 형태 △정규직·비정규직의 연계 노조 3개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현재 사립대학에서는 대다수가 정규직 단일 노조로 이루어져 사실상 비정규직들이 공식적 의견을 교환하기가 불가

능한 것이 현실이다. 본교 역시 198명의 노조원 모두 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듯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비정규직 대부분이 짧게는 1, 2년의 단기 계약직으로서 지속적인 고용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대학에서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차기 계약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대학노동조합 금기송 위원장은 “근로자 파견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직원이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그 업무가 계속 진행된다면 정규직화하는 것이 의무로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러한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비정규직 모두의 문제

학교와 노조와의 갈등을 넘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 역시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다. 한양대의 경우는 현재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정규직 직원들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거부해 비정규직 직원들이 단일 노동조합을 독자적으로 결성한 것이다.

서울대와 부산대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설관리직 노조가 따로 결성되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외대에서는 지난 12일 두달여 간의 학내 노동조합 직원들의 전파농성 끝에 임시직을 제외한 전체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는데 성공했다.

한국외대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계돼 있는 노동조합의 형태로 정규직 직원들이 4년 전부터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학교측에 요구함으로써 비정규직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해 왔다. 이로써 노동조합 가입 전 정규직의 30%도 채 되지 않던 임금 수준을 지속적인 임금 협상으로 50%선으로 끌어 올렸으며 마침내 전국 대학 중에서 최초로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이뤄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외대 이정철 노동조합 위원장은 “정규직 직원들이 비정규직 직원들을 끌어안아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본교 직원노조 역시 특수 고용직 등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시키기 위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설

국보법 폐지 지금이 기회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총선 후 다시 활발하다. 이제 해묵은 개혁 과제가 되었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폐지움직임을 보이고 한나라당 역시 적어도 개정에는 의견을 동조하고 있다. 얼마 전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했던 중앙일보 설문조사 결과도 '국보법을 개폐해야' 의견이 73%를 차지할 정도다. 더구나 촉발언론도 더 이상 시대흐름을 거부할 수 없는 일부 조항 개정으로 여론 물이를 하는 듯하다.

하지만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국보법 개폐 논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초기에 활발했으나 결국 흐지부지 돼버린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보법 개폐를 내세웠던 DJ는 출범하자마자 “아직 이르다”고 입장을 바꿨고 노 대통령도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묵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당시에 달리 이제 민주화세력에 뿌리를 둔 정당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집권 후 ‘우로 한보’ 이동할까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민과 학생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냉전의 식, 지역주의에 근거한 낡은 정치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중 심세력으로서 국보법 폐지를 촉진하는 촉매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야당으로 전락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개혁의지가 가장 확고한 현시점이야말로 국보법 폐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송두율 교수와 11기 한총련 의장이 또다시 국보법의 희생양이 되고 마녀사냥 앞에 이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의 인권이 침해되고있는 오늘 국보법을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다. 잘못이라고는 단지 민족통일을 향한 열의가 남들보다 더한 것뿐인데 어버이날에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우리 선·후배, 친구들끼리 언제까지 수배자의 고통을 안겨줄 것인가. 50년 동안 사상과 자유를 옥죄어온 국보법, 그리고 근간을 이루는 수구냉전의식, 이제 ‘평화통일’ 인권 지향 아래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따뜻한 민족애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때다.

동국만평

류승너 Hollowinbbi@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김주관, 부편집장: 김주관, 편집장: 최성민, 구독문의: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http://dgupress.dongguk.ac.kr, http://www.dongguk.edu

Dongguk Career Elite Program 이수 신청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Dongguk Career Elite Program의 제 2기 이수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합니다. 취업을 위하여 저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다양한 과목과 포함된 본 프로그램에 학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1. 신청자격 : 매년 2학년 1학기 재학생 모두.
2. 신청방법 및 기간 : 2004. 5. 10(월) ~ 21(금)까지 취업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사전신청 필요함).
3. 교육내용 : 표의 내용
4. 인증기준 : 4학년 1학기까지 DCEP교육내용 모두 이수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외국어 1학기 성적 3.5 이상.
- 외국어 보이(850/인문, 800/자연), CBT(250), 토플 780점 이상.
- 워드프로세서(1급), 인터넷 정보 검색사(2급), 컴퓨터 활용능력(2급) 중 1가지 이상 취득.
- 사회봉사 활동 36시간 이상.

5. 혜택 : 가. 졸업시 인증서 수여 및 학적부에 인증자로 등재. 나. 외국어 시험 응시료 지원. Dongguk Career Elite Program 신청 후 최초 응시 점수를 기준으로 차회 응시 성적이 - 100점 이상 향상 시 : 응시료 상당액 지원(도서상당분으로 지급). 단, 보이(외)의 시험의 경우와 지원 회수 등에 대하여는 예선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함. 다. 취업시 최우선적으로 추천. 라. 각종 취업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마. 국내 주요 대기업에 인증자 명단 통보 및 홍보.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취업지원팀 전화(2260-3055)나 E-mail(job@dongguk.edu)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 생 처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날 맞이 제6회 연등 대공모

아름다운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창의적인 연등을 만들어 보세요!

- 공모내용 : 의미를 담은 아름답고 독창적인 등
연등부문 :
- 으뜸상(1명) : 상금 30만원과 상장
- 버금상(1명) : 상금 20만원과 상장
- 이차상(2명) : 상금 5만원과 상장
공모기간 : 2004년 5월 12일(수) ~ 5월 21일(금)
공모접수 : 여학생실(계산관 1층)
발표 및 시상 : 2004년 5월 25일(화) 11:00 계산관 앞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여학생실(2260-3058)로 문의 바랍니다.
- 연등재료는 여학생실에서 드립니다.

정각원 · 여학생실

2004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사과정 이수 신청서 접수

- 1. 신청자격 : 2004학년도 1학기 현재 2학년 재학생
2. 자격종류 : 평생교육사 2급
3. 접수기간 : 2004. 5. 19(수) ~ 5. 21(금)
4. 접 수 처 : 사범대학 교학과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여론광장 주체별게시판 교육과정(11번) '평생교육사과정 이수 안내'를 참고할 것.

사 범 대 학

2004학년도 2학기 1차 복학 · 재입학 · 휴학 안내

- 1. 복학 : 가. 접수일자 : 2004. 6. 7(월) - 6. 9(수)
나. 휴학 대상자 : 일반휴학자로서 휴학기간 만료자 및 한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할 경우 교과과정 이수여 지장이 없는 자, 병사휴학한 자로서 전역자 및 2004년 9월말 이전 전역예정자.
다. 2004학년도 2학기 복학대상자로서 2학년 복학예정자는 전공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소속대학 교학과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라. 구비서류 : 1)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2) 군복학자 : 복학원서 1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전역증서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 기재된 것) 1부. (전역예정자는 제대 후 반드시 전역증서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마. 유의사항 :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휴학원장이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만료로 제적됨.
3. 일반 휴학 : 가. 접수일자 : 2004. 6. 14(월)-6. 16(수)
나. 휴학 대상자 :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다. 신청서류 :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 휴학원장인(휴학원장서)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라.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1년 추가 연장가능),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로 제적됨.
4. 접수장소 : 소속대학과 교학과.

교 무 처

즐겁고 안전한 '성'을 위한 가이드

주제 : 성적 자기결정권 훈련

- I. 당당한 성! - '성'적 존재로서의 나
- 비디오 시청 및 토론
- 나의 '성' 결정하기 / 내가 원하는 '성'
- '성'적 존재로서의 나 알기 / 인정하기
-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II. 즐거운 성! - '성'적 의사소통
- 성적 자기주장
- 의사소통 유형
- '성'적 권리 장전
III. 안전한 '성'!
- 원칙 없는 임신 및 낙태에 관하여

●일 시 : 2004년 5월 24일(월) 200 ~ 400
●장 소 : 학림관 J304호
●신청접수 : 5월12일(수) ~ 5월 20일(목)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학생실(2260-3056, 3058)로 문의 바랍니다.

여 학 생 실

2004년 예비군훈련 일정 · 장소

- 기본훈련8시간 대상자(전역1~6년차) / 노고산훈련장(219연대)
- 예비군연대본부 연락처 (☎ 2260-3073~4)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일정	5.17(월)	5.18(화)	5.19(수)	5.20(목)	5.21(금)	5.24(월)	5.25(화)	
대상	공매대 인가대상자, 인가대상자, 2004학년도 1학기 입학대상자, 2004학년도 2학기 입학대상자	공매대 인가대상자, 인가대상자, 2004학년도 1학기 입학대상자, 2004학년도 2학기 입학대상자	사대대 인가대상자, 인가대상자, 2004학년도 1학기 입학대상자, 2004학년도 2학기 입학대상자	사대대 인가대상자, 인가대상자, 2004학년도 1학기 입학대상자, 2004학년도 2학기 입학대상자	사대대 인가대상자, 인가대상자, 2004학년도 1학기 입학대상자, 2004학년도 2학기 입학대상자	사대대 인가대상자, 인가대상자, 2004학년도 1학기 입학대상자, 2004학년도 2학기 입학대상자	사대대 인가대상자, 인가대상자, 2004학년도 1학기 입학대상자, 2004학년도 2학기 입학대상자	사대대 인가대상자, 인가대상자, 2004학년도 1학기 입학대상자, 2004학년도 2학기 입학대상자

동국대학교예비군연대

불교 대중화 앞장서 온 동국 100년

강도 높은 연구 통해 한국불교의 미래 밝힐 것

동국대학교는 불교화 화엄시(華嚴時)다. 불교에는 아함·방등·반야·법화 열반·화엄으로 5시를 나누듯 동국대학교는 화엄에 총합한다. 명진 시대가 아함이었다면, 중앙학림은 방등시니까.

왜 이렇게 5시로 나누어 보려는가하면 1906년 명진학교가 개교하여 불교를 가르칠 때는 전통적인 강원교과목을 주로 하였고, 약간의 신학문이라 하여 산수·지리 등이 교수되었기에 불교학의 발전에는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역설시대 도성출입이 금지되고 승려신분이 최하로 내려갔을 때 서울 동대문 밖 창신동에 명진학교의 개교는 불교학문을 아함일지 모르지만, 불교자체는 대총상(大總相)이었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 최고의 수모는 왕래를 구속한 것이다. 왕래의 구속은 자유의지를 저지하고 사교행위를 저해하는 인간유린의 길이다.

동국과 함께 승위는 불교

한국불교가 이 땅에서 살아있음의 존재를 박제로 말려버리려는 무서운 질곡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지금껏 동국이 역사하여 왔다는 것은 불교가 끊임없이 노래하는 법륜상전(法輪常轉), 불일증취(佛日增輝)가 아닌가 한다.

동국 100주년은 의미가 심장하다. 그러므로 동국대학교는 불교학만이 아니라 불교의 화엄법판이다.

교세(教勢)란 말은 진부할지 모른다. 종교를 믿는 것이 무슨 힘이 되리라는 혹자들은 교세에 휩쓸려 다니기도 한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후정정하였는가의 가림이 그 교의 힘이 되어야 하는데 어딘가 잘못되고 있다.

그러나 교세(教勢)가 교세(教勢)에 디딤돌이 되었던 시대가 있었다면 동국대학교의 발전이 불교의 긍정세로 인지되었을 것이다. 여하간 불교와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와 불교는 연기법으로 재현되고 있는 제법실상이다. 명진 이후 많은 교수들은 유명한 강사스님이셨다.

특히 박한영 스님은 수행에도 철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석학에도 최고라는 명예를 지녀 위당 정인보와도 교유가 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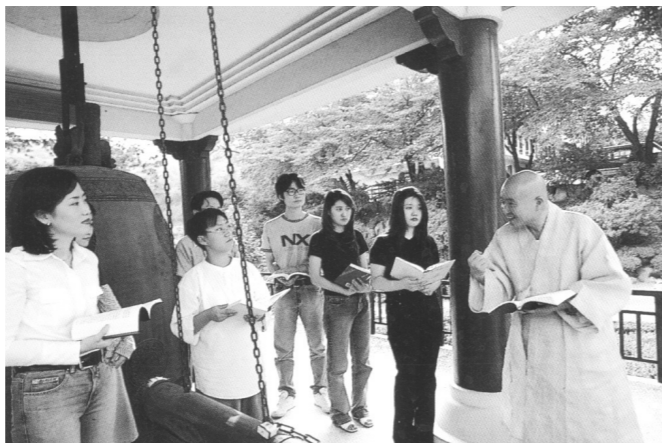
학술단신

불교문화연구원주최 생태학세미나 오는 21일 덕암세미나실에서 진행

‘희망의 생태학, 길도 숲도 필요하다’를 주제로 하는 불교생태학세미나가 불교문화연구원의 주최로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덕암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불교생태학의 실천적 분야로서 농업생태학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에 관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홍기삼 총장의 기조연설로 세미나가 시작되며 △친환경 농업을 통한 농업의 생태적 접근방향과 실태 △도시문화와 도시생태계 △친환경 농업을 위한 순환사회 구축 △생태마을을 조성 정책의 방향과 고재 △농업, 생명과 엔트로피 △유전자 변형식품에 관한 생태학적 접근 △농업적 생명, 산업적 생명 그리고 불교적 생명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복과 6·25 그리고 수복 이후 대학이 전반적으로 체제를 정비하게 되자 교육·연구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 불교학도 연찬에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권상로·김영수 선생은 불교사에 관심을 갖고 한국불교사 정맥을 바로 찾음에 심혈을 기울였고, 김동화 선생은 불교학 개론을 출판하여 한국에서 처음으로 체계적 개론서에 의하여 불교학을 이우하게 하였다.

김익성 선생은 화엄학개론을 저술하여 역사적이고, 과학적 방법으로 화엄학을 이해하게 하였다. 또한 조명기 선생은 원효전서 전부를 자료집으로 집록 간행하므로 한국불교학 연구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하였다.

불교문화연구소의 설립

사실 한국불교학은 60년대 이후부터 신기원을 맞게 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즉 불교학의 분신이 되는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그것은 불교문화연구소(1962)의 설립이었다.

이 연구소의 연구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불교학보가 창간되었고, 이 학보에 발표하는 영광은 불교학문의 최고 수혜자로 자부하게 되었다.

이 연구소는 지금은 불교문화연구원으로 승격 발전하고 있는데, 초창기 우정상·이재창·김영태·김운학·필자가 활동하였고, 한국불교전승목록, 한국불교사상의 체계적인 연구를 종합한 한국화엄이상연구·한국전태사상연구·한국선사상연구·한국정토사상연구·한국밀교사상연구 등을 발간하여 한국불교 자존적 위상을 높여왔다.

이와 아울러 동국대학교는 역경원을 개원하여 한글대장경을 완간하는 불사를 회향하였고, 대학 출판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완간한 한국불교전서는 동국대학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불사는 교세가 신장함에도 기인하지만 그 못지 않게 학문연구에 생명을 헌정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고익진의 헌신도 그 하나이다.

동국불교 100주년에 생각할 대목이 또 있다. 60년대 유학한 학자들의 활동이다. 김지건은 화엄학, 김운학은 불교문화, 채인환은 계율학, 한보광은 정토학, 법산은 선학, 도업은 화엄학 등을 전공하여 귀국 후에도 후학에 교수하여 희망이다.

또한, 홍성식 선생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회가 창립하여 불교학연구발표에 새로운 장을 펼친 것이다. 불·가을로 불교학 연구발표가 있을 때마다 많은 관계자들이 성과물을 갖고와서 자기 고유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끝내는 한 모음장으로 환원하니 이도 불교가 가르치고 있는 교상이 아닌가 한다.

초창기 아함에서 비롯한 강당식 교육이 이제는 화엄법판



에서 원효의 무애무를 넘출나게 추고 있다. 보법(普法)의 문이 열려 그 법이 어디에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다. 이 모두 동국대학교의 명진이 씨앗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무엇이 열매되었으리. 매일 어느 주말이면 불교학술연구회 발표가 없는 날이 없게 되었으니, 이도 동국이 기여한바라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으니.

이러한 힘이 자라나서 이제 세계불교를 아우르려고 하는 불교결집대회까지 이끌어 왔으니, 100주년의 역사에 연꽃수술을 올릴만도 하다. 연구열이 가열되어 지관스님은 가산불교대사님을 간행하고 있으니, 모두가 동국의 덕화이다.

그러나 불교는 어디에 머물면 그곳치게 되니, 불교가 무한히 뻗어 나가 삶의 자리를 포근히 하고 삶의 길을 직지(直指)로 한다면 여기서 안주할 수는 없다.

선대의 업적을 숭토록 삼아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의 칼을 갈아 날 푸른 심금을 만들어야 한다. 선대의 숭토록 아끼지 말고 그 칼날이 지나갈 때마다 한 점 한 점 닦아 나감은 앞으로 가는 사람의 칼날을 세우는 것이니, 촌시를 다투어 시험에 앞서가야 한다.

동국불교가 나아갈 길

지금 불교는 우주공학에 도전하여야 한다. 우주정복에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데 열안이 되어온 세계인에게 우주는 성주귀공하는 즉물(即物)임을 인식시키는 철학적 논리가 나와야 한다.

또한 불교는 자연연기(自然緣起)임을 인식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기세간(器世間)이 황폐하면 오온이 구성될 수 없다. 오온이 구성될 수 없는 세상은 파황지이다. 유일한 인간도 오온이고 기세간도 오온으로 구성된다. 이 모든 것은 온전한 오온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자연연기하는 자연오온이요, 오온자연이 연기자연이기에 동국대학교가 미래불교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물리과학에 경도되고 있는 인성을 심리과학에 환입할 수 있는 철학적·논리학적 구축하는 일이다.

이것은 동국 100주년이 걸여온 역사가 불교를 대중화·문화화 하였듯이 앞으로 강도 높은 연구를 하면 동국불교가 심리과학 인성분위인 지혜와 자비로 장양되어 인류를 부동삼매에 살게 할 것이다.

그것은 중관과 유식을 화엄화 하는 일대사 인연이다. 즉, 이것은 일심화(一心和)하는 원효적 기신(起信)에서 비롯될 것이다.

목정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

강택구 역사교육과 교수의 사상이 이야기



동양역사학의 아버지 사마천

(B.C. 146~?)

역사를 전공한다는 명분으로 역사가인양, 혹은 묵묵인척 하는 필자에게 늘 떠나지 않는 상념이 있다. 역사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나아가 역사는 어떤 정신으로 역사를 쓰고 바라보아야 하는가?

서양인들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존중하나, 동양에서는 정한(前漢) 시대의 사마천(B.C. 146~?)을 그 이상의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의 대표적 저서인 '사기(史記)' 중 '열전'은 사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부분이다. 여기에서 그는 인간사를 관통하는 모든 유형의 인간들을 조형함으로써 인간의 본질과 역사의 본질을 통찰하고 있다.

'열전'에서 사마천은 다양한 종류의 인간들을 통해 역사를 보고 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역사서에서 만나는 영웅들이나 승려자들의 기록만을 다루지 않는다. 그의 서술 대상에는 성공하거나 특히 실패한 학자·정치가·군인, 심지어는 자객·해학가들까지도 포함된다. 이들은 각각 일기일예(一技一藝)로 일세를 풍미한 인간들이었다. 그의 서술은 문장의 미사여구가 주는 현란함보다는 오히려 가슴속에 있는 진실을 울리고 심장에 비수를 들이대는 것 같은 차가운 지성을 느끼게 한다. '백이숙제전'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갈파한다. "성인이며 선인이며 정의과인 백이, 숙제는 왜 산



·사마천의 초상화

중에서 굶어죽었고 ... 반대로 도적이라는 악당의 두목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잡듯이 빼앗고 사람의 간을 회쳐서 먹고 포악망자하여 수천 사람의 도당을 모아 천하를 횡행하였으나 제명을 누리고 살았다. 이것은 그가

도대체 어떤 덕행을 쌓았기 때문인가?"

여기에서 그는 인간사에 대한 근원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 "천도(天道)는 공평무사하고 언제나 착한 사람 편을 드는 것인가?" 그의 처절한 통찰처럼 역사란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고 불의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들 역사현상과 도리의 모순적 관계를 논한다. 사마천도 한 역사가로서 또 인간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패러독스는 늘 계속되는 것으로 사마천은 결론지었다. 여기에서 그는 역사와 역사가로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토로한다. 그는 역사 속에 명멸하는 의인과 성인들, 그리고 특히 보상받지 못했던 불운한 인물들을 역사에 남김으로써 그들의 고혼을 위로하고, 또 이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순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군자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신의 이름이 칭송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는 법, 따라서 사마천은 역사 속에 감추어진 인물들이 용이 구름을 만나듯, 바람이 호랑이를 따라 일어나듯이 역사가에 의해 현재 속에 살아나기를 바랬고, 또 여기에 자신의 역할을 빚대었던 것이다.

사마천에게 인생의 목적이란 육신이 썩어 없어진 후에도 영구히 명예를 남기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훌륭한 덕성과 의지를 가지고도 고혼이 된 사람들을 자신의 문장과 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고자 바랬다. 사마천 이후 동양에서의 역사서술이 성행하면서 후세인들은 현세에서의 입신양명 못지않게 사후의 역사적 평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신구조, 즉 역사적 인간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마천의 사상은 위대한 인간존중 사상의 표현이었다.

필자는 오늘도 고뇌에 찬 사마천의 외로운 절규를 떠올린다. "역사에서 천도(天道)란 존재하는가?"

2004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동국대학교 대학원 일반전형

■ 모집학과 : 석·박사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표기 학과는 경주캠퍼스 개설 학과)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인문 사회계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본, ★한문, 중어중문, 사, 미술사, 철, 윤리문화, 교육, 유아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북한, 신문방송,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관광·호텔경영, 식품자원경제, 지리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본, ★한문, 중어중문, 사, 미술사, 철, 윤리문화, 교육, 유아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북한, 신문방송,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관광·호텔경영, 식품자원경제, 지리
자연 과학계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수학 교육, 농, 임, 생물, ★조경, 가정, ★간호, ★생물공학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수학 교육, 농, 임, 생물, ★조경, 가정, ★간호, ★생물공학
공학계	전자공학,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환경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시스템공, ★전자계산, 기계공, ★안전공, 정보통신공	전자공학,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환경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시스템공, ★전자계산, 기계공, ★안전공, 정보통신공
예체능계 의약계	연극영화, 미술, 체육 ★연의, ★의	연극영화, 체육 ★연의, ★의
학과간 협동과정	멀티미디어(연극영화, 전자공, 컴퓨터공, 경영) ★전자상거래(경제, 정보통신, 정보산업)	

■ 모집인원 : 각 학과별 약간 명

■ 지원자격
1.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04년 8월 취득예정자.
2.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방법

1. 석사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미술학과: 실기시험)
2. 박사과정 : 필기시험(영어, 전공) 및 면접, 제 2외국어(불교·인도철학과에 한함)

■ 장학

1. 외국인 입학생 지원에 대해 등록금의 50% 장학금 지급
2. 각종 교외장학, 조교장학(연구 및 행정조교), 총장장학, 고시장학, 공인회계사 장학 등 다수
3.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 교수에게 매학기 교육조교를 배정
4. 화학과학과 입학생 전체에게 장학금 지급
5. 본교출신 석·박사 입학생 전체에게 장학금 지급(졸업 후 3년 이내 진학자)

대상)

구분	일시	장소 및 유의사항
원시교부 및 접수	2004. 5. 18(화) ~ 6. 4(금)	○ 교부 가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guk.edu/gs) 나, 서울캠퍼스: 학술관 3층 대학원 교학부 다, 경주캠퍼스: 진흥관 1층 사회과학 대학원 교학부
		○ 원서접수 가, 인터넷접수 : 2004. 5.24(월)~6.3(목) 17:00시 까지 나, 방문접수 : 2004.6.2(수) ~ 6. 4(금) 17:00시 까지
전형일시 및 장소	2004. 6. 19(토)	○ 10:00시부터(학과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시험장인 대학원 개시관 및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발표	2004. 7. 1(목) 14:00 예정	대학원 개시관 및 홈페이지 공고
등록기간	2004. 7. 5(월) ~ 7.9(금)	조중, 재일,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 기타

○ 교육원직자지원부가 지원하는 "불교문화사상사(BK21)교육연구단"의 기타 교육부(한국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의 국가지원 연구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 대학원생에게는 매월 연구비 지급.
○ 본 대학원은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학기 내내 수료 가능함.
○ 석사과정 법, 경영, 화, 생물, 가정학과는 서울, 경주캠퍼스 공동 개설된 학과임.
○ 석, 박사과정 중 학부 및 석사과정 출신학과에 관계없이 전학과 응시가능(현의, 의, 간호학과는 동일 학과에 한하며, 다만 간호학과는 3년제 대학 간 호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지원 가능)
○ 연극영화학과 영화학 전공은 이문임.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참조

동국대학교 대학원
www.dongguk.edu/gs
TEL 02-2260-3094 ~ 5, 3116
FAX 02-2260-3685

2004학년도 2차 전공결정 안내

■ 관련 : 학칙 제26조(전공결정) 및 학사내규 제16조(전공·학과)

■ 신청대상

가. 2004학년도 2학년 재학생 중 전공 미결정자
나. 2학년 2학기 복학생 중 전공 미결정자

■ 2004학년도 2차 전공결정 일정

전공결정 절차	대상	기간	비고
① 전공 신청	2학년 재학생	2004. 5. 24(월) ~ 5. 28(금)	
	2학년 2학기 1차 복학생	2004. 6. 7(월) ~ 6. 9(수)	1차 복학시기
② 전공 결정 최종 결정 및 확정공고	2학년 재학생	2004. 8. 16(월) ~ 8. 18(수)	2차 복학시기
	2학년 2학기 1차 복학생	2004. 8. 11(수) 예정	교양교육운영실(대학원 공고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
	2학년 2학기 2차 복학생	2004. 8. 23(월) 예정	

* 문과대, 이과대, 공과대, 정산대의 경우는 1, 2차 복학생 전공결정 사항만 참조

■ 전공결정시 기본원칙

가. 전공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희망(지망 1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나. 전공결정 대상자는 소속 대학(학부)내의 개설 전공(학과)만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전공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망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단, 소속 대학(학부)내에 개설전공이 4개 미만일 경우에는 4지망 미만일 수 있다.
다. 전공결정 과정에서 특정 전공(학과)로 지원이 편중된 경우 수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원칙으로 배정한다.
(1) 각 전공(학과)별로 제1지망 지원자가 최대배정 가능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순으로 사정하여 초과인원은 차순위 지망 전공(학과)에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이 경우 1지망 지원자를 우선순위에 1지망 탈락후 2지망으로 옮겨갈 때 해당 전공을 1지망으로 지원한자가 평점평균이 낮더라도 우선 배정된다.
(2) 전공(학과)별 2차 정원 : 1차 선발 인원을 제외한 잔여인원

■ 전공결정 신청방법

가. 2학년 재학생
(1) 학업지도교수와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본인의 전성과 희망전공을 숙고한다.
(2)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소속된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망까지 전공 신청.(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3) 일단 신청된 전공은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기에 본인이 신청된 최종 확인을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2학년 2학기 복학생
(1) 전공 신청원에 본인이 소속된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4

지망까지 작성하여 신청한다.(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2) 작성된 전공 신청원은 소속대학 교학부에 접수한다.
(3) 각 대학 교학부에는 개인별 신청원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날인한다.
(4) 일단 접수된 신청원은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기에 본인이 접수된 최종 확인을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배정기준

가. 1학년 1, 2학기, 2학년 1학기 성적과 계절학기 성적을 통산한 누계 평점평균을 비교 적용한다.
나. 다음의 경우는 3개학기 이수자와 성적 경쟁시 3개학기 이수자의 하위에 둔다.
(1) 2개학기 이수자(조기복학자)
(2) 3개학기 이수자중 1학년 수료학점에 미달하는 자
* 1학년 수료학점(2003학번기준) : 35학점(단, 불교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 30학점)
다. 동점자 처리기준
(1) 제1기준 : 개인별 누계 평점평균을 소속 셋째자리까지 비교한다.
(2) 제2기준 : 평점평균이 동일한 자중에서 총 취득학점이 많은자가 우선한다.
(3) 제1, 2기준에도 동점자일 경우 동 순위로 처리한다.

■ 복학생의 전공결정

가. 기본원칙
복학생은 입학당시 소속된 모집단위내에 개설된 전공(학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단, 모집단위가 세분화되어 소속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학부 소속 전공만 지원 가능하다.
나. 배정기준
(1) 98~00학번 복학생 전공결정
* 아래 (가), (나)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희망전공 배정
(가) 98~00학번 복학생의 성적이 98~00학번 전공결정 당시의 전공별 컷라인을 상회할 경우에는 희망전공에 배정한다. 선발전원장 참석에 따른 일부 재학생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정원의 1/2를 관리한다.
(나) 98~00학번 복학생의 성적이 복학 당시 이루어진 전공결정에서의 전공별 컷라인을 상회 할 경우에는 희망전공에 배정되지만 정원의 1/2를 관리한다.
(2) 2000학번 이후 복학생 전공결정 : 현행과 동일

■ 정원의 입학자

가. 대상자 : 교포 및 외교관자녀, 외국인, 농어촌, 특수교육대상자 등
나. 배정원칙
본인의 희망전공에 우선 배정되나, 선발전원장 참석에 따른 일부 재학생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정원의 1/2를 관리한다.

■ 편입학생의 전공결정

일반 학생의 전공 배정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학기수 부족에 대한 차순위 배정은 하지 않고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을 일반학생과 비교 적용한다.

동약론

마음의 벽



‘동국인 모두가 하나되는 자리’ 매년 이맘때면 열리는 대동제의 의미다. 그러나 해마다 대동제는 구성원들의 참여가 부족해 아쉬움을 남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학교지원도 없이 학생회비로만 행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종 무대·조명 설치와 연예인 섭외 등 그동안 학교 지원에 의존한 것에서부터 기존에 학생회가 준비해왔던 것까지 함께 해야 하는 올해 기획단의 상황은 어렵게 됐다. 때문에 학생회는 기존 학생회비 대동제 책정안 예산에 다른 예산을 추가하고, 총학생회 집행부 장학금을 투입했다. 더불어 앞으로 학교 주변 상점 등에서 스폰서를 구해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예산이 부족해 대동제 규모가 작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기획단은 “행사를 없애지는 않되 규모를 축소하거나 상품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측은 “교비 지원이 제도화 돼 있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야 한다”는 식의 관례는 더이상 통용될 수 없다” “원래 축제와 같은 행사는 학생회비에서 충당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은 지난 본관점거 이후 악화된 학교와 학생회간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이러한 양측 불화에 따른 결과는 결국 대동제 질 저하와 구성원들의 참여 저조를 초래한다. 학교와 학생회가 힘을 합쳐 동국인 모두의 축제를 만들어내기도 부족할데, 서로 갈등과 대립만을 반복하고 있으니 학생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00주년을 2년 앞둔 지금,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동국발전’을 위해서는 동국인 모두가 하나된 ‘대동의 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 바랍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884년, 김옥균·박영효·홍영식 등은 대외적인 자주독립과 대내적인 제도개혁을 통해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확립 하려는 거사를 일으켰다. 갑신정변은 한국근대사상 최초로 ‘위로부터 개혁’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지만, 그 어느 사건보다도 다양한 역사적 평가와 해석이 내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변 발발 뒤 두 번째 갑신년을 맞이 한 오늘날, 우리는 갑신정변과 그 주역인 김옥균 등의 활동을 어떻게 되새겨야 할까.

기득권층이 개혁 주체로

먼저 정변 주역들이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부단히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 했던 선구자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당시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명문가문 출신으로서 어느 양반들처럼 과거공부에 열중하여 20대 초·중반에 문과에 합격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 중 김옥균은 22살 때 장원 급제를, 서재필은 18세의 최연소로 합격하였고, 박영효 역시 철종의 사위로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변 주역들은 개인의 출세와 가문의 영광을 빛낼 수 있는 순탄한 길을 거부하고, 실학의 비판적 사고방식을 이어받는 동시에 세계의 동향과 근대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힘썼다.

또한 그들은 일본·미국을 방문하여 근대식 제도와 문물을 직접 시찰하고 자주독립과 부국

강병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사상과 체제에 안주하지 않은 채 세계정세의 추이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사상과 제도를 수용하려 했던 그들의 태도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갑신정변의 주역들은 이론으로만 무장한 지식인이나 사상가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소 행동으로 실천한 개혁가였다. 그들이 공포한 ‘갑신정강’에는 인민평등권을 제정하고 문벌을 폐지하며, 전통적인 사회·경제제도를 개혁하고, 나아가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등 기존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근대적 국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담겨져 있었다.

이들 정강에는 정변 주역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으며, 전통체제의 모순을 철저히 극복하지 못한 측



한철호
시범대 역사교육과 교수

갑신정변의 현대적 의미

면도 적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양반제도 자체를 부정할 점에서 나타나듯이, 당대 최고의 기득권을 향유했던 그들이 스스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개혁 의지를 강하게 품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자주와 민주의 중요성 일깨워

마지막으로 갑신정변이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자주독립국가를 이룩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정변 주역들은 정강 첫 조항에서 중국에 대한 조공하례 폐지를 내세움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과 평등한 자주독립국가임을 천명하였다.

임오군란 이후 중국이 군대를 파견하여 국내의 정치를 깊숙이 간섭해오는 상황 하에서 국가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중국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군대를 동원했던 외세의존적인 자세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외세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외세를 끌어들이는 행위는 더 커다란 위험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점은 역설적이지만 갑신정변이 우리에게 자주와 민주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반면교사적인 메시지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당시 우리나라에 가해지던 최대의 외압이 중국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그들의 행위는 자주와 개혁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적·외교적 전략 내지 선택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해방 직전인 1944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변인격이었던 조소앙은 ‘갑신 독립당 60주년기념에 임하여’란 글에서, “동방혁명의 개막이며 한국독립운동의 시초” 혹은 “청년 정치가의 공전 한 쾌거”였던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국권강탈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고 아쉬워하였다.

또한 그는 “갑신 선열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하자고 역설함과 동시에 그 결점을 거울삼아 독립운동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면서 실천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60년이 흘러간 지금, 여전히 자주와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역사의 거울에 갑신정변을 다시한번 비추보면서 어떠한 의의와 교훈을 얻어낼 것인지 신중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연극 ‘관객모독’

친한 선배가 표를 주셔서 우연히 보게된 연극.

바로 ‘관객모독’이었다. 연극열전에 참여한 작품의 하나로 너무 보고싶었던 연극이었다.

연극모임에 속해있는 나로서는 좋은 기회였다. 청담동에 있는 우림씨어터로 가서 자리를 확인한 후 연극의 막이 오르기를 기다렸다.

배우들과 관객들이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고, 관객들에게 소금과 물을 뿌림으로써 관객들도 같이 소금을 던지고 물을 뿌리는 상황.

가만히 지켜보는 연극이 지겨웠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연극이었다.

이 연극을 보고 난 후 특별한 감동보다는 나로서는 지루한 연극은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었을 때 더욱 빛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연극은 연극에 대한 욕심이 한층 더 생기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김지수(사과대 2)

고, 앞전이 된 상태에도 배우들의 욕설은 계속되었다. 다시 불이 들어오자 그들은 관객석을 향해 소금과 물을 뿌렸다.

극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상태로 연극은 막을 내린다. ‘관객모독’은 관객들과 함께하는 연극이어서 더 즐거웠다.

배우들과 관객들이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고, 관객들에게 소금과 물을 뿌림으로써 관객들도 같이 소금을 던지고 물을 뿌리는 상황.

가만히 지켜보는 연극이 지겨웠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연극이었다.

이 연극을 보고 난 후 특별한 감동보다는 나로서는 지루한 연극은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었을 때 더욱 빛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연극은 연극에 대한 욕심이 한층 더 생기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김지수(사과대 2)

본교 육승완 군의 애절한 사망 불상사 방지 위한 대책 세우길

5월 1일 나의 동기인 국어국문학과 04학년 육승완 학형이 사망하였다. 4월 24일 교회에 온 헌혈차량에서 헌혈 한 뒤 교회 활동을 하다가 정신을 잃었다. 승완이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의자에 부딪혀 정신을 잃은 채 위생병원으로 호송되었다.

검사결과 승완이는 두개골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병원 측에서는 일주일정도 지나면 퇴원하여 평소와 같이 활동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승완이가 사망하기 전 여러 증상에 호소·4월 25일 11시경 구토에 피가 섞여 내용·가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는 병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으니 걱정을 말라는 말을 전할뿐이었다.

결국 5월 1일 12시경 점심을 먹다 대변을 보고 싶다는 승완이의 말에 부모님께서 대변을 받는 도중, 승완이는 정신을 잃었다. 간호사 대기실에 간호사는 없었고 그로 인해 대응이 뒤늦어 졌다.

병원 측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한다며 승완이에게 전기충격요법을 6시간 동안·전기충격요법을 6시간 가했을 때

꺼어났다 하더라도 반신불수가 됨·가하였고 그 뒤 승완이의 장례식을 치렀다. 혈액원 측에서는 입원비를 지불한 뒤 별도의 연락이 없고 가족들이 연락을 하니까 사건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말만 하였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병원의 과실은 보도하지 않고 혈액원 측에 대한 약간의 경계심과 승완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보도를 하였다.

헌혈 후 헌기증에 의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한다. 잠시 쓰러지는 경우부터 이빨이 부러지는 경우,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다.

헌혈 할 때의 형식적인 진단은 위와 같은 사고의 방지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헌혈차량은 이러한 형식적인 진단조차 건너뛰는 경우가 허다하다. 혈액원 측의 별 효과 없는 절차와 병원의 안이함은 만 18세 승완이의 죽음을 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길용(문과대 국문1)

‘성년의 날’ 참 의미

내 나이 21살이 됐다. 이제 며칠 있으면 나 역시도 성년의 날을 치르게 된다. 주변 친구들을 둘러보면 벌써부터 성년의 날 하면 멋진 남자 친구에게 받는 20송이의 장미, 향수 그리고 Kiss... 이런 것들만 상상하며 설레고 있는 것 같다.

작년까지만 해도 나도 그런 것들만 기대하고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성년의 날을 며칠 앞둔 지금 우리는 ‘이 날이 주는 진짜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년의 날은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추고 새로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년의 날은 뜻 깊은 날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돌아오는 성년의 날을 사치와 향락에 빠져드는 시작의 시간이 아니라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창조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아름답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서의 시작으로 이 날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성년의 날을 맞이한 모든 학생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최유리(사과대 2)

소나기

우리학교 대동제

이래서 좋다/싫다

△매년 주점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우리 학교 축제는 타 대학교 축제에 비해 규모나 내용 및 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단과대별끼리 따로 즐기는 것이 아쉽다. 또 술마시는 데에 급급해서 안타깝다.
△올해에는 연예인 김재중 불러줘요.
△대동제가 본교 학생들이 단합할 수 있는 기회로 거듭났으면 한다.
△이럴 시간에 책이나 관련 더 읽는게 나을 듯 한데요.
△대동제는 술판 = 난장판이다.
△춤 재미있고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였으면 한다.
△교수님! 대동제에는 수업중 빼주세요.
△우리학교 대동제 솔직히 너무 불만한 것이 없어요. 학생들 참여도 너무 적어요.

동약광장

축하합니다

△팽강이 시험 대박 합격 축하한다.
△H군 생일 축하해요.
△김기문(04), 김은혜(04) 커플 탄생을 축하합니다. -경영학과 일동
△정혜원(04) 최재남(04) 커플탄생을 축하해요. -경영학과
△경영학과 03학번 박근우씨! 사랑합니다.
△학중야 미국 잘 다녀와라.
△건아 많이 많이 축하해. -98
△최지훈, 강한나 커플된거 진심으로 축하해.

열심히 합니다

△판긱이랑 연등제 열심히 준비합시다!! -패장
△유스호스텔 24회 창립제 준비 열심히 하자. -Rain
△장산꽃매 04 정애리. 사랑해 우리 열심히 하자. -선배 군
△대성야 공부 열심히 하자. -BWD
△중간고사의 악몽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레포트들의 악몽이 나를

반기네. 열심히 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신발 빨기. 정말 열심히 좀 합시다. 도서관에서 신발을 벗지 말당나.

수고하셨습니다

△축제준비 하느라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대동제 만들어 봅시다.
△식당 아주머니, 청소 아주머니들 날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수고하세요.
△지겨운 3시간 연강의 악몽을 끝마치며, 정말 수고했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군요.
△HJ 발제 준비 하느라 수고 많았다.

그리고 ...

△성진선배 밥 사줘서 고마워요
△도서관에 태대학생이 있어요.
△식당 밥값이 질에 비해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우리 학교 연등 색깔이 너무 고와요. 히히.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가로열쇠

- 생활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현재 음식의 가격을 인상하게 된 것. 본지 종합면 참조.
-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여 교내 및 큰 도로에 걸린 등.
- 경축하여 벌이는 큰 장치나 행사를 일컫는 말.
- 대학에서 비정규직 교수로서 정해지는 시간에만 수업하는 강사. 외래교수의 낮춤말.
- 본교 동문 출신 여류시인으로 ‘순간’, ‘고독’ 등의 주요 시를 발표한 시인. 본지 사림면 참조.
- 인원이나 물자의 배치를 표현한 도면.
- 직접 선거제도의 준말. ↔ 간선제
- 호텔이나 급장 등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건물에서 정문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겸한 넓은 공간.

세로열쇠

- 대학에서 5월에 하는 축제의 명칭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축제라는 의미의 단어.
- 한 곳에서 늘 살고 있다는 의미.
- 대수롭지 않게 소홀히 여기는 일을 일컫는 사자성어.
- 불교에서 부처에게 축원하는 뜻을 적은 글.
- 구도사관 리모델링 후 공간의 논의 후 ○○○○가 걸 정됨. 본지 보도면 참조.
- 직장에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으로 비정규직의 반대말.
- 장어가 되는 것을 없앤다는 의미의 단어.
- 사람이나 차들이 다니는 비교적 큰길.

1386호 정답

개	교	기	년	식	빚
육	세	빚	임	빚	임
다	기	적	분	금	금
획	과	학	과	학	과
단	소	과	과	과	과
대	주	5	일	제	제
학	부	제	별	제	제

*이번호는 당첨자가 없는 관계로 다음호에 4명을 추첨합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는 발행일자 동대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답을 적어 본지 총무부에 응모해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호 정답과 당첨자는 5월 24일자 신문에 게재됩니다. 편집자

동명칼럼



정우석
극동물류·사과대 정의 94졸

올해로 졸업한지 만10년, 직장생활도 10년째다. 대학 동기들중 일부는 부장도 달았고 보통은 아직 과장 정도라고 있다. 물론 구멍가게 사장도 있고. 같이 대학생활을 하던 최재성 씨가 얼마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세월이 갑자기

열정을 품은 ‘진짜’ 프로가 되라!

왕창 흐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대학 졸업 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던 그도 어디선가 열심히 10여년의 세월을 보냈기에 오늘날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허구한날 데모 아니 민주화투쟁만하다. 그래도 다들 용케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이제 짬밥 좀 먹었다고 회사에서 새로 사원을 뽑을 때면 면접관의 자리에 앉는다. 뒤 회사마다 선발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사람보는 눈은 다들 비슷한 것 같다. 일단 회사가 정하는 기본 수준만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호감이 가는 면접자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게 인지사정인 것 같다. 내 경우는 열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 열정없는 신입사원은 거품빠진 맥주나 물먹은 빵튀기 과자나 다름없다. 특색은 맛이 없고 빠삭빠삭한 신선

함이 없다. 원래 기대했던 중요한 무엇이 빠졌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 열정은 숨길 수가 없다. 가슴속에만 있으면 참을 수 없는 재채기처럼 불쑥 불쑥 아무때고 튀어나온다. 그렇기에 짧은 시간 안에 노련한 면접관들은 눈치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없는 신입사원 후보자들이 많다. 대학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많다. 지금이라도 열정이라는 바이러스를 가슴속에 집어넣고 키워보자. 또하나 문제는 어설픈 프로다. ‘어설픈’이라는 단어와 ‘프로’라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한다. 월급쟁이들 사이엔 이런 말이 있다. “사장은 직원이 그만두지 않을 만큼 월급을 주고 직원은 잘리지 않을 만큼

만 일한다.” 현실적이지만 참 서글픈 얘기가. 그리고 또 하나 “일이라는 것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돈(월급)을 준다.” 이러한 말 속에서 어설픈 프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일을 업으로 삼으니 프로는 프로이되 보통 생각하는 프로라는 말속의 이미지와는 너무 판판이다. 어설픈 프로들은 매달 뽕(월급)을 맞는다. 약발이 떨어질 때 쫓으면 다시 한 방. 매년 약간의 강도를 더해가며 맞기에 그것에 연연하고 중독되어간다. 외부의 거친 파도와 맞서기보다는 지금의 익숙한 환경이 좋다. 이게 어설픈 프로의 감춰진 내면이라고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답은 알았으니 각자의 정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후배들 앞이라고 오랫동안 주재받은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 씁스럽다.

메아리

스승의 비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되새기고자 각각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제정됐다. 이날이면 가족간의 화목과 사랑을 편지와 선물,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시 한번 확인한다. 하지만 5월은 그만큼 잔인한 달이기도 하다. 자식에게서 버림받은 무의탁 노인과 어머니 없는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오히려 소외만 느끼게 할 뿐이다. ▲5월에는 스승의 날도 있다. 교편을 존중하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정된 기념일. 은사를 찾아뵙고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게 일깨워준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다. 하지만 스승의 날도 일부 스승, 특히 비정규교원인 외래교수 이른바 시간강사에게는 소외감을 들게 만들 뿐이다. 교수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위해 매진하는 스승이지만 수많은 감사의 편지와 카네이션은 그들을 외면한다. 학생들에게 축하받는 교수들 이면에는 소외된 시간강사의 애처로움이 남는다. ▲시간강사의 실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간당 2만 6천원이라는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여러 대학에서 강사생활을 하고 있다. 연구·휴식공간하나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비정규 계약직이기에 매학기마다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들. 이런 상황에서 맞는 스승의 날은 그들에게 더욱 잔인하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만이 소외받는 것은 아니다.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스승의 날 학생들이 교수에게 드리는 선물과 꽃다발 중에는 가르침에 대한 은덕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칭송하기보다 단순히 의례적인 행사로 여기는 경우의 것이 많고, 심지어 특별한 목적을 내포한 채 선물하는 학생이 없지도 않은 것이다. 학생들도 인성교육에 앞서 취업을 걱정해 주어야 하고 강의와 연구에만 매달리는 현대사회의 교수들을 '스승'으로 우러러보기는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세속적으로 발전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변질되고 있는 스승의 날, 스승과 제자 모두에게 부담스럽고 씁쓸한 기념일이다. 최성민 편집장 qwertewq@dg.u.edu

지상논쟁을

학점포기제 논란

제한한다

“제도적 뒷받침 있으면 합리적 제도될 것”

들을까 말까... 한 번쯤은 꼭 듣고 싶었던 강의인데 고민을 하다 이내 포기했던 경험이었다. 전공분야가 아닌 수업인데다 상대평가라 학점이 잘 나오기도 힘들고, 재수강을 하려면 다시 학점 때문에 머리가 아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수강신청을 할 때마다 주위 사람들이 그저 전공분야에 국한된 수업, 무난하게 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입소문으로 전해오는 수업만 찾을 때면 과연 대학이라는 공간이 다양한 학문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곳인가 라는 생각에 씁쓸해지곤 한다. 이렇듯 여러 학문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학점이 취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재수강하려는 과목이 폐강되었을 때의 곤란함, 성적 향상과 성적 관리 측면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점포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강의의 마다 일정기준의 평가 방법으로 학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단지 학점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강의를 골라 듣거나, 들었던 강의를 또 듣는 일이 흔히 발생

한다. 또한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졸업학기에 맞추기 위해 재수강하지 못한 학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학문의 장이라는 취지에도, 많은 인재를 사회에 진출시키는 일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분별한 학점 포기 등 악용될 여지가 있고 수강질서가 흐려질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졸업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포기한 학점만큼 벌충해야하는 만큼 많은 학점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강의 중 참여에 있어서도 정답을 위한 의견에 얽매이지 않고 참발적인 의견표현으로 더욱 풍부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강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예를 들면 1년에 6학점 이하로 포기 학점 수를 제한 한다거나, 교필·전공필수 강의에 대한 학점 포기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 된다면 학생 스스로가 학점 관리를 할 수 있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박소혜(경명대 정보관리3)

“책임감 결여된 행동이며 대외적 이미지 하락될 것”

학점 포기제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우선 학점이라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학점이란 한 학기동안 내가 얼마나 성실히 수업에 임했고 그 수업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하였는가에 대한 결과이다. 이를 수의 개념을 통하여 표현된 것이라 생각한다. 적어도 나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학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정의하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학점 포기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아래 두가지 이유를 통하여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은 자신이 신청한 수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수강 신청기간, 정정기간, 취소기간을 통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기회와 권리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기간들을 모두 지나 자신이 한 학기동안 수강하고자 신청한 학점을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행정이나 교수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학생 개개인이 학생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대학

생은 성인이다. 성인으로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대한 포기는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이며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없어야 한다. 둘째, 학점 포기제를 통한 학점 인플레이션이 궁극적으로 우리 동국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점 포기제가 인정된다면 학점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러한 학점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우리 학교 외부, 즉 타학교나 기업에서 우리 학교생들의 학점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국인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학점포기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학점포기제가 나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학점 포기제는 학생의 입장에서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학점 포기제는 도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민경환(정선대 컴공3)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동국문학 1백년’ 자긍심 고취시켜

지난 1386호 동대신문은 개교기념일과 동국대학교 100주년을 중심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여러 기사들 중에서 학술 편의 기사가 먼저 눈에 띄었다. ‘동국 인문학을 이끌어 온 동국 문학 백년’이라는 강렬한 헤드라인으로 나의 관심을 끈 기사는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동국대학교의 대선배님들이자 한국의 문학사를 이끌어 오신 한용운, 서정주, 조정래 등 전면에 내세워 애교심을 고취시키고 자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발상이었다. 다음으로 해설문의 학과제 폐지 관련 기사도 학부제 폐지 논의에 대하여 학생들의 논의를 돕는 유용한 기

사였다. 최근 몇 년 동안 학부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학생들은 막연한 생각만 있을 뿐 자세한 진행 상황이나 속사정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였다. 이런 기사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개교특집면은 참신성이 돋보이는 지면이었다.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을 여론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학교 입장에서 학교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같은 지면 우측에 위치한 ‘만나고 싶었습니다’ 면에서는 사회 각 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동국대학교 동문 선배님들의 근황을 소개함으로써 애교심과 자긍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훌륭한 기사였다. 김승연(사과대 신방4)

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부쳐 공사 현장 진입 등 자제 부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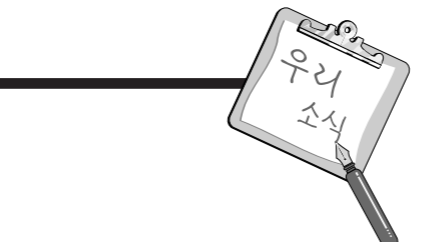


리모델링은 기존건축물의 구조적, 기능적, 미적, 환경적 성능 및 에너지성능을 개선하여 거주자의 생산성과 쾌적성 및 건강을 향상시킴으로써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노후화된 건물의 성능을 개선시켜 신축건물과 동등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기본골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능적인 부분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기단축, 철거비용절감, 골조시공비 절감 등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모든 분야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 불 때 앞으로 건축물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환경효율성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수법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개발건축물의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단지과 도시적 광역적인 맥락 속에서 사회 및 커뮤니티와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울트라건설(주)에서 시공 중인 중앙도서관(구관) 리모델링 공사는 건축면적 981.38평, 대지면적 4284.26평의 지하 1층, 지상4층의 도서관을 주요 구조부(기둥,보 등)는 남기고 그 외의 부위(내·외부 마감 및 내부벽체)는 철거 후 새롭게 단장하는 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약 10개월로 2005년 2월이던 새롭게 단장한 도서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각종 내·외부 철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부 학생 및 교직원들이 타건물로 가기 위해 공사현장을 가로질러 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공사현장은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대로 현장으로 진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공사차량의 진입 및 소음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겠지만 10개월 후면 교직원 및 학생들의 연구 및 학습의 장으로 새롭게 태어날 도서관을 기대하며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영석 울트라건설소장

동약게시판

- 제28회 DUBS 방송제 ‘신비’ 5월 20일 오후 6시 중강당
- 제6회 서울여성영화제 앵콜 상영제 5월 18일~20일 중앙도서관 A/V실 문의 2260-3681
- 경영학과 03 엠티 5월 21일~22일 대성리 솔거캠프
- 동국서도회 신입생 모집 학관 2층 문의 www.dqsdh.ez.ro
- 동국문화예술제 5월 17일 오후7시 90주년 예술극장
- 문화예술대학원 작품전 5월 17일~21일 갤러리 동국
- MASIC 세 번째 정기공연 5월 17일 오후 6시 학림관 소강당
- 음설 25번째 정기공연 5월 18일 오후 6시 학림관 소강당
- 제8회 동국 락페스티벌 5월 18일 오후 2시~8시 만해광장 참가밴드 fearless dawn, 한성대 왕산악, 이수라의 9팀
- 사회학과 전공설명회 5월 19일 오후 4시 동국관 M305 강연자 정승혁(농협 유통부 과장) 외 4명 설명회 후 맥주파티
- 전기공학과 3, 4학년 수학·졸업여행 5월 26일~30일 방곡, 파타야 32만원
- 생명화학공학과 3학년 수학여행 5월 27일~31일 방곡, 파타야 36만 5천원(여권비 제외)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소고기버섯찌개 (1800)	순두부찌개 (1600)	된장찌개 (3200)
(5/17)	주꾸미볶음 (2000)	닭갈비 (2000)	부대찌개 (3500)
	자장면밥 (1800)	제육볶음 (1800)	황태구이 (3800)
화	육개장 (1800)	갈비탕 (2000)	된장찌개 (3200)
(5/18)	돈갈비찜 (2000)	두부김치 (1800)	쇠고기국밥 (3500)
	닭조림 (2000)	오징어불고기 (1800)	한치회덮밥 (3500)
수	사골곰탕 (1800)	떡김치찌개 (1600)	된장찌개 (3200)
(5/19)	참치콘뽕밥 (1800)	돈장조림백반 (1800)	완자전골 (3500)
	리조죽 (1800)	산채비빔밥 (1800)	이면수국이 (3500)
목	장터국밥 (1800)	아욱국백반 (1600)	된장찌개 (3200)
(5/20)	오뎅쌈밥 (2500)	닭곰탕 (2000)	육개장 (3500)
	공보리얼무비빔밥 (1800)	쇠고기볶음밥 (1800)	아구찜 (3800)
금	소고기미역국백반 (1600)	떡만두국 (1800)	된장찌개 (3200)
(5/21)	오징어소면무침 (1800)	버섯불고기 (2000)	불낙전골 (3500)
	튀김우동 (1800)	너비아니백반 (1800)	더덕구이 (3800)

매체비평

인터넷 편

박분자 앨범

“누구나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 보여줘”



얼마 전 필자는 모 포털사이트에 기록된 박분자의 인물검색정보를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박분자'라고 치자, 실존하는 다른 가수들과 마찬가지로 대표곡, '휴지의 시', '잡히지마' 등의 히트송, '인터넷패러디 전문', '고속도로트루트매들리 발매(2000)'라는 정보가 뜨는 것이다.

사실 박분자가 실존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사이버공간에서는 그는 실존하는 어느 가수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버젓이 가승인인터뷰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사이버가수인 박분자는 다음사이트에만도 팬 카페만 30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박분자의 플래시가 올라지는 풀뿌리닷컴의 경우에도 당일서버가 마비될 정도의 인기도를 보여준다.

왜일까. 왜 우리는 그가 가공의 사

이버공간이 만들어낸 인물임에도 그에게 열광할까. 이들이 열광하는 다양한 장르의 실존 가수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분자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박분자가 가지는 익명성보다 오히려 일상성에 있을 것이라고 보아진다. 일상성에 기반한 개성이나 리믹스 등이 이미 우리의 문화저변에 존재해왔으며, 이들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사실 박분자를 만들어내기까지 우리는 2003년의 사이버공간을 지배했던 키워드인 '엽기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근송'에서부터 불기 시작한 엽기송의 바람은 '우유송', '소주송', '발뽀뽀기송'에서 최근에는 '팔려송'에

이르기까지 네티즌들의 사소한 일상을 표현하거나 혹은 캠페인송으로, 그리고 사회비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 같은 엽기송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우리의 일상을 담아내고 있는 가사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며, 덧붙여 바로 우리 이웃의 목소리가 담겨있다는데 있다. 박분자의 노래가 인기를 끌었던 것도 '카드빚'이나 '저금통'과 같은 서민들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준다는 데 있다.

2003년부터 사이버공간에서 생겨나는 변화의 흐름의 중심에는 항상 '문화주체'로서의 '개인'이 존재했다. 즉, 엽기송이었던, 열광문화이든 간에 그리고 그 주체가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스스로 이

야기하길 원한다. 결국, 문화의 눈높이를 개인 스스로에 맞추기 시작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분자라는 사이버가수의 등장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대중문화의 핵심인 '대중가요'를 '일상가요'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누구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누구나 가사를 적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작곡가가 될 수 있다는 '일상문화'를 만들어내었으며, 이제는 사이버공간에서 -과거엔 전문가가 아닌 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하위문화로 간주되었지만- 누구나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김양은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축제, 더이상 혼자일 수 없다!

‘참여’ 바탕으로 열린축제 만들어야

대동제, 백상예술제전, 단과대별 축제, 동연제... 본교 여러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축제이다. 대학에서는 각 단위의 일정으로 특별한 행사의 장이 없으면 여러 단위가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하다.

축제는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 하나의 마음으로 뭉치고 화합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축제를 보면 기획하는 사람들만 즐길 뿐 대부분의 학생은 이런 축제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떻게 하면 동국인이 하나로 화합하는 축제가 될까.

학내구성원 참여를 이끌어야

현재 대학축제를 살펴보면 학생회 중심의 축제가 전부이다. 대부분 행사는 기획부터 일반학생참여가 없고 학생회 관련사람 위주로 행사에 참가하는 등 학내구성원인 교수, 직원, 일반 학생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하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교수, 직원이 함께하는 '노래자랑'의 행사가 있었지만 참여부족으로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홍보부족도 문제였지만 대부분 구성원들에게 '축제는 학생들만 하는 것이다'라는 의식이 만연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학내구성원 모두가 '축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내구성원으로부터 받는 대동제 아이디어 공모전, 교수님과 함께하는 단과대 축제, 학내 3주제 3인 4각 달리기 하는 등 학생만의 축제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은 만큼 분위기가 가라앉고 행사 규모도 협소하다.

타 대학의 경우를 보면 화장품과 음

료업체 등 기업이 참가해 행사를 벌이는 일이 있다. 이는 어느 정도 행사를 풍족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상업적 이벤트에 '대학 축제의 순수성을 잃는다', '기업은 상품홍보에만 열을 올린다' 등의 문제제기가 뒤따른다. 하지만 학교와 학생측은 이를 유의하며 함께 행사를 준비해 적절한 선을 유지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가는 대학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한양대의 경우 왕십리 지역주민들과 '노래자랑' 행사를 가져 눈길을 끌었으며 아주대의 경우 학생회에서 서울 각지를 돌며 현 웃음을 모아 '아름다운가게'라는 불우이웃돕기 업체와 연계해 바자회 활동을 펼쳐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학문의 전당, 지금은??

최근에 대학축제를 보면 학문의 전당이라는 곳에 학술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축제준비기간이 되면 각 대학에서는 인기연예인 유치에 열을 올리고 학생들은 주점만을 찾는 등 행사장의 분위기가 향락적으로 흐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웃고 즐기기 위해 '오락실'에서 게임만 하다 오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문화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를 가꾸는 문화 또한 없어서 안 될 것이다.

딱딱한 학술행사가 관심을 모으기 힘들다면 학술과 흥미를 접목시키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 사회과학술단체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공개 토론회를 열어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학습과 재미를 유도하는 행사도 만들 수 있다.

이외에도 대학은 그의 역할인 교육과 문화의 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학교만의 축제를 살리자

이제 건학 1백주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1백주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지만 우리학교만의 특색을 살린 축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학교 특징을 살펴보면 오랜 전통과 불교학교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학내구성원들은 우리학교 축제에 이 같은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불교대학을 보면 '불교도 주간'이라는 불교대 축제가 있지만 불교대학생들만의 축제일뿐 이를 즐기는 다양한 학내구성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본교만의 특징으로 내세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우리학교에서만 볼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요즘 학내 분위기는 이전과 많이 다르다. 앞으로 학내분위기는 점점 변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대흐름을 맞추지 못하고 전에 쓰였던 행사가 '재탕' '삼탕' 이어지고 주점이 대부분의 행사로 전락한다면 앞으로도 학내구성원들의 요구에 뒤처지는 행사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느껴야한다.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끄는 축제다운 축제는 우리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본교 대동제 역사

동국제전에서 현재까지

동대생들에게 '대동제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을 물으면 열에 아홉은 유명가수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어떤 답을 할까. 동양의 축제를 거슬러 올라가 그 해답을 알아보자.

▲1960~70년대 초반= '동국제전'이라고 불리는 현 목멱대동제의 전신이 시작된 해는 1959년이었다. 동국제전은 보통 5월 초순에서 중순에 행해졌는데 이는 석가탄신일을 경축한다는 의미가 강했다.

대부분의 행사는 심포지엄이나 강연회 등으로 이루어졌고 동아리나 학과의 특색에 맞는 전시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김용표(불교78졸) 불교학과 교수님은 당시의 축제를 '학술행사와 예술행사가 주류를 이루었고 전교생이 참여하는 음악제나 카니발 등도 열려 매

우 낭만적이었다"고 회상한다.

이외에 이색적인 행사로는 총학생회가 주최한 '메이 킹'을 꼽을 수 있다. 메이 킹에 뽑힌 인기 있는 남학생은 학내신문 1면에 이름이 실릴 정도로 매우 유명했다.

▲1970년 후반~80년대=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이제 행사는 재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전이제 행사 중 하나인 '동국인의 향연'을 통해 동문, 교직원, 재학생 모두 한 자리에 어우러져 장기자랑을 펼치는 장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85년 '동국제전'의 명칭이 '목멱대동제'로 탈바꿈하고 축제의 주체가 총학생회로 옮겨가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축제준비위원회를 통해 '민중해방·민중해방의 깃발아래' 등 매 축제마다 기조를 내세우고 이에 맞는 행사를 진행해 현재와 같은 축제의 형식을

갖추게 된다. 김은주(역교91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분과장은 "당시는 학과나 단과대에서 하는 대부분의 행사가 정권에 대한 규탄 등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기억한다.

▲1990년대=학생들의 참여가 현저히 줄어들어 총학생회 단위의 행사보다는 참여 주체를 늘리기 위해 공연분과 동아리나 단과대 단위의 행사가 많이 열렸다. 이종관(기계공98졸) 씨는 "학과에서 자동차와 헬광라이더를 자체 제작해 출품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딱딱한 학술적 성격에서 탈피해 차전놀이, 길놀이, 진오귀굿, 모의재판 등 재미를 더한 행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불온서적몰로 취급되어 금서 조치된 책들을 판매하는 금서바자회, 상영 금지 등 제재 조치를 받은 '담힌 교문을 열며' 등을 상영한 새로운 영화제 등은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해 마련되기도 했다.

설윤진 기자
dbswis@dongguk.edu

전문화정착과 실생활에 필요한 의학상식 알리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애견달리기 △한마음 게임 △애견줄다리기 등으로 진행되며 매년 100~150마리의 애견들이 참여한다.

▲대구대 '다양한 꽃들의 향연' = 지난 1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 1회 대구대학교 봄맞이 꽃 축제'의 세부 행사로 다양한 꽃들의 향연과 장승 제작행사가 열렸다.

다양한 꽃들의 향연은 △지피식물 △수생식물 △식충식물 △분재 △관엽식물 등이 전시됐으며 즉석에서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화훼 농가에 전달해 도움을 주기도 했다.

특히 △금강화 △매발톱꽃 등 흔히 접할 수 없는 야생화를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야생화는 축제 이후 반응이 좋아 대구대 분관 앞에 동산을 조성해 상설 전시하기로 했다.

정리=문화부
culture@dongguk.edu

